



KEIMYUNG BRIDGE



KEIMYUNG BRIDGE

Special Theme

- 04 지역과 함께하는 계명대학교
- 06 계명대학교 & 웰컴연구소의 AI 인재 양성
- 08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앞장서는 계명대학교

KMU District

- 10 동산도서관의 스마트한 변신
- 14 지역 기업을 응원하는 '이색 인물사진' 전시회

Spotlight

- 16 구영테크 이희화 대표이사 인터뷰
- 18 경북문화재단 최종수 문화예술진흥원장 인터뷰
- 20 기계자동차공학과 유경진 동문 인터뷰

Trend Jump

- 24 2025 트렌드 키워드: 옴니보어

Re, Moment

- 26 Proud of KMU: 미술대학

Esteem

- 30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우수인증대학' 2년 연속 선정
- 32 대구·경북 지역 취업자 유학생 부이펙트 동문 인터뷰
- 34 계명대학교 홍보대사 '아리미' 30주년 기념

건강 컬럼

- 38 [건강 기고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40 KMU News

- 48 KMU Donation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명대학교의 이야기
〈KEIMYUNG BRIDGE〉

이번 83호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계명대학교'를 테마로, 대학이 펼치는 다양한
상생 활동과 더불어 AI 기반 교육혁신의 흐름을 담아보았습니다.

06

웰컴연구소와 함께하는 AI 인재 양성



10

동산도서관 디지털 러닝 커먼스 개관



16



구영테크 대표이사
이희화 동문

18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동문

26

미술대학의 도전과 성과



34

아리미 30주년 기념



Spring+Summer 2025 VOL.83

발행인 신일희

발행처 계명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홍보팀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220호

TEL 053-580-6031~4 **FAX** 053-715-2014

E-mail hongbo@kmu.ac.kr

발행일 2025년 5월

편집 계명대학교 대외홍보팀

기획·디자인 상상146 053-352-0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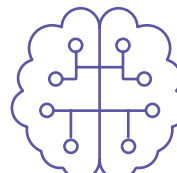
Together,
we unlock
new possibilities
for tomorrow.

지역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여정,
혁신을 이끄는 놀라운 힘이 만드는 미래

계명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AI 기술의 접목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조명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대학의 연구가 결합되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첨단 기술과 지역 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그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줄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혁신

AI가 바뀌놓을 미래, 그 변화의 중심에 계명대학교가 있다. 2016년, 계명대학교는 글로벌 IT 기업 퀄컴연구소(QI)와 손을 잡고 AI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연구실이 아닌 실제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익히고, 국제 학술대회와 글로벌 기업에서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계명대학교의 AI 교육이 열어가는 가능성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계명대학교가 11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서울 본다비치 뮤지엄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SW 교육 페스티벌'에 참가해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AI · SW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계명대학교는 미국 퀄컴연구소(Qualcomm Institute, 이하 QI)와 함께 진행 중인 글로벌 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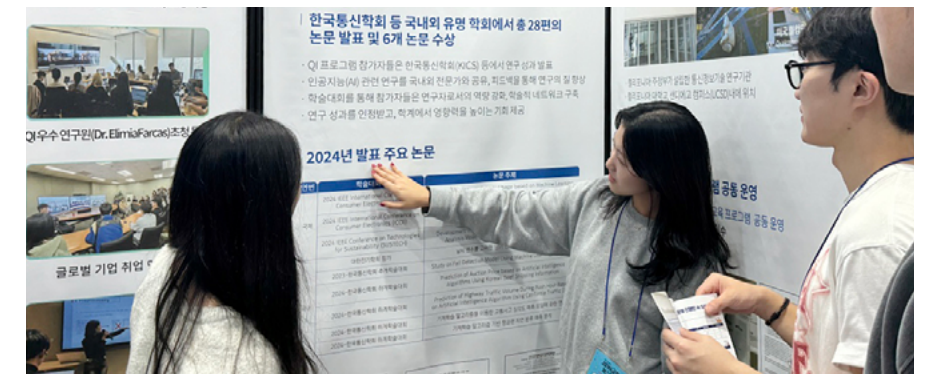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한양대, 연세대, 중앙대 등 국내 여러 대학과 함께 운영되며, 국내외 대학생들이 최신 AI 기술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다. 계명대학교는 2022년부터 정식 참여해, 대구 · 경북 지역 학생들에게도 세계적 수준의 AI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 행사 현장에서는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QI 교육 과정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사례를 초 · 중 · 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단순한 설명을 넘어, AI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식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내 호응을 얻었다.

부스에서는 AI 전문 자격증 과정, 글로벌 학위 연계 프로그램, 수성알파시티 캠퍼스 조성 계획 등 계명대학교가 준비 중인 다양한 SW 인재 양성 비전도 함께 공개되었다. 행사 기간 약 1,000여 명이 부스를 찾았고, 특히 11월 3일(일)에는 김범준 산학부총장과 QI의 조석현 박사가 진행한 '글로벌 AI 프로젝트 설명회'에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이뤘다. 지금까지 계명대학교와 QI가 함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총 265명의 학생이 AI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고, 28편의 논문이 국내외 학회에 발표되었다. 그중 다수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으로 진출하며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현대자동차 R&D본부에 입사한 김준호(로봇공학과 18학번) 동문은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해 AI를 활용한 전기회로 결함 감지 논문을 썼고, 이 경험이 취업 면접에서 큰 강점이 됐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계명대학교는 QI와 협력해 AI 교육의 글로벌 거점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수성알파시티 내 신규 캠퍼스를 통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함께 지역 SW 인재 양성에 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초 · 중 · 고 학생부터 현직자, 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 참여는 계명대학교가 추진 중인 '실무 중심의 AI 교육'과 '산학연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직접 부스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소통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모습은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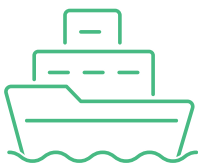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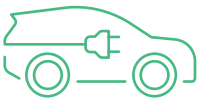


미래를 향한 질주, 모빌리티 혁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학과 지역, 기업이 손을 맞잡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계명대학교는 미래 자동차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실무와 연결된 교육과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열린 글로벌 모빌리티 행사에서도 계명대학교의 창의적인 시도와 성과가 빛을 발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계명대학교가 이번 행사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눈부신 미래였다.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계명대학교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과 연구 성과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가을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 참가한 계명대학교는 창의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계명대학교는 4년 연속 엑스포에 참가하며 미래차융합 지역혁신사업단(RIS),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COSS),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3.0), 미래형모빌리티융합 기술혁신센터(UIC) 등과 협력해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2024 춘천 AWS Deep Racer Championship’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율주행차 관련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동아리 ‘비사팀’의 업그레이드된 1/4 스케일 자율주행차, 친환경 미래차, 모터스포츠 튜닝 차량 등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차량 4종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계명대학교는 첨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알리며 융합형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7월 개최된 ‘코-워크 아카데미’를 통해 전국 66개 대학, 2,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18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하며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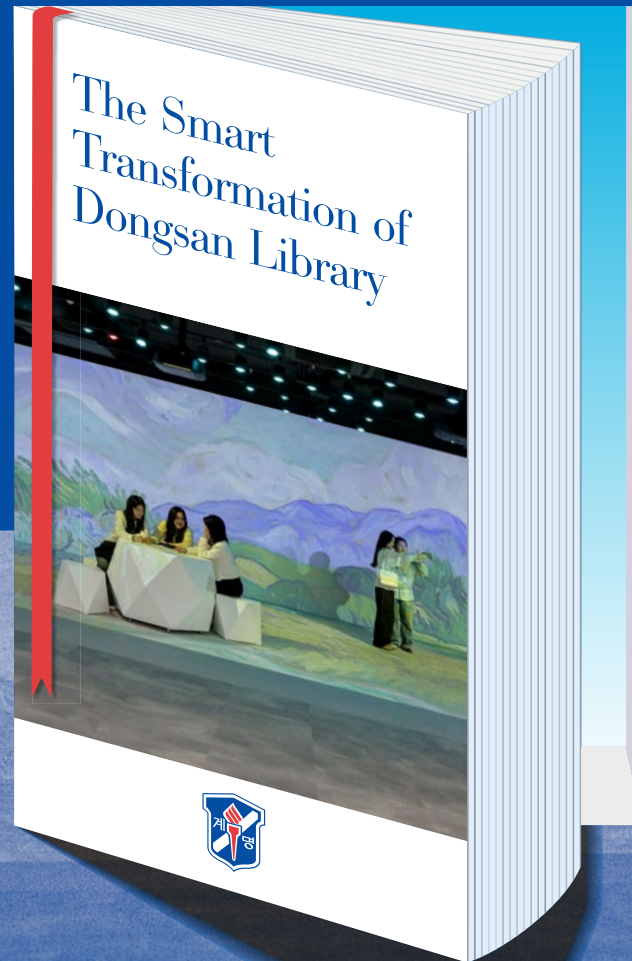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라, 계명대학교는 지역 산업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기업과 상생하는 계명’이라는 목표 아래 성림첨단산업(주), 이인텔리전스(주), 씨스톤테크놀로지스(주)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행사 기간 18개 모빌리티 기업 및 10여 개 산학협력 희망 기업과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연구실에서 진행된 에너지 변환 시스템, 로봇 및 차량 전동기 제어, 전력전자 및 전력변환 프로젝트의 성과물도 전시돼 계명대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증명했다.

신일희 총장은 “지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으로 지역 산업과 동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계명대학교는 2024년 9월 대구 모빌리티 특화단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총 14억 4천만 원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대구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I와 미디어가 만난, 동산도서관의 스마트한 변신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최신 AI와 실감미디어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학습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단순한 자료 열람의 기능을 넘어, 학습과 연구, 창작과 협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미래형 멀티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몰입형 체험 공간과 창의적 프로젝트 수행 공간이 마련되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학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Digital Learning Commons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AI와 실감미디어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학습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번 리뉴얼은 단순한 공간 개선이 아닌, 학습과 연구, 창작과 협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미래형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조성된 디지털 러닝 커먼스(Digital Learning Commons, DLC)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식을 탐색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구공간(Research Commons, RC)

데이터 분석과 고급 정보 검색 공간

학습공간(Learning Commons, LC)

전자자료 기반의 디지털 교육 공간

프로젝트 공간(Project Playground, PP)

창의적 프로젝트 수행과 협업이 가능한 공간

코스모스 X(Keimyung Omni Space for Media & Open Sensory eXperience, KOSMOS X)

실감미디어 기반의 디지털 리얼리티 체험과 몰입형 강연을 제공

가장 주목할 만한 공간은 '코스모스 X(KOSMOS X)'다. 생성형 AI 기술과 실감미디어가 합쳐진 이 공간은 단순한 시청각 체험을 넘어서, 사용자가 직접 만든 이미지나 콘텐츠를 미디어월에 구현해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환경을 제공한다.

4면 미디어월에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이미지가 송출되고, 다채로운 조명 효과는 몰입감을 높이며, 참여형 전시와 강연, 창작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도서관의 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주는 핵심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층은 조별 과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인 '모듈형 학습 라운지'가 운영되는 곳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리클라이너 의자와, 의자마다 1대씩 비치된 스탠바이미로 콘텐츠나 OTT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허브'도 마련되어 있다. '블로섬 라운지'는 봄에 꼭 방문해 보길 추천하는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핑크빛 벚꽃 뷰는 지친 학생들에게 소소한 힐링을 선사한다. 또한, 라틴어로 '책'과 '자유로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리베르 홀'은 다채로운 조명과 LED 패널을 갖춘 고화질 스크린 덕분에 마치 영화관에 온 듯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모듈형 학습 라운지 (Modular Learning Lounge, MLL)	가변형 가구로 자유로운 그룹 활동이 가능
멀티미디어 허브(Multimedia Hub, MH)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OTT 열람이 가능
블로섬 라운지(Blossom Lounge)	도서관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힐링 공간
리베르홀(Liber Hall)	공연 · 세미나 · 영화 감상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



이번 개편을 기념해 동산도서관은 오픈 프로그램, 초청 강연, 체험 전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KOSMOS X를 중심으로 디지털 창작 실습, 융복합 프로젝트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는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교수진에게는 다양한 수업 설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동산도서관은 과거부터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도서관이기도 하다. 1999년부터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지역 내 도서관을 대상으로 멘토 봉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고문헌 수집에도 힘써, 현재는 국가 지정 보물 23종 97책, 대구시 지정 유형문화재 9종 20책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 도서관 중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기록이다.

스마트 기술과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품은 동산도서관. 이번 리뉴얼을 통해, 도서관은 더 이상 단순한 책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이 흐르는 '지식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특별 프로젝트

지역에 불어넣는 응원의 메시지, ‘힘내라! 우리 기업’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응원의 장이 열렸다. 단순한 인물 사진이 아닌, 각 기업인의 이야기를 담아 낸 작품으로 전시회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특히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촬영하고, 지역의 기업과 소통하며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지역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열정이 담겨, 보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감동을 선사한다.

계명대학교는 지역 기업을 응원하는 취지의 일환으로, ‘힘내라! 우리 기업 프로젝트’ 전시회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2월 7일(금)까지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극재미술관 블랙갤러리에서 진행했으며, 학교와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기업이나 기관의 대표, 임원, 직원 등 20명의 인물 사진이 전시되었다.

지역 기업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의 전시 작품은 모두 계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학생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직접 촬영하고 제작했으며 작업 과정에서는 교수진과 사진 전문 기업이 멘토로 참여해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사진 작품은 각 기업인의 개성을 담아내 프로젝트와 전시회의 목적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었고, 전시가 종료된 후에는 작품 속 주인공들에게 사진을 기념으로 전달하였다.

이 전시회를 통해 계명대학교는 지역과 더불어 사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기관이나 기업이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은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산업을 이해하고, 사진 관련 실무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REVIEW

(주)잇츠어스

서영욱 대표이사

“대학에서 멋진 그림을 선사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물화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작품을 보니 왠지 스스로가 특별해지는 기분이고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에 큰 기여를 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주)이노알앤씨

최인호 대표

“대학의 기업에 대한 큰 관심과 배려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지속적으로 대학과의 산학협력 강화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주)엔유씨전자

김종부 대표이사

“우리 지역 기업들은 디자인을 통해 꾸준히 경쟁력을 높여왔으며, 대학 및 기관의 디자인 인프라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학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길 희망합니다.”

열정으로 이뤄낸 성공 이희화

(경영학과 06학번, 경영대학원 MBA학과 09학번)



이희화 동문의 인생 2막은 찬란하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의 길에 나선 그는 현재 기업의 CEO로 매일 성공의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하루를 48시간처럼 살아온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일궈낸 그의 이야기는, 배경이 아닌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기회도처(機會到處)

‘기회도처(機會到處)’는 이희화 동문이 신념으로 삼고 있는 말이다. 그는 대구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 ‘구영테크’의 CEO이자, 만학도로 대학에 입학해 꿈을 이룬 인물이다.

그의 학창 시절은 경북 영양군에서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가정 형편상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부모님의 뜻을 따라 포항공업고등학교(現 포항제철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 현대자동차 기능직 사원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을 수는 없었다. 그런 그에게 ‘기회도처’라는 신념처럼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1976년, 현대자동차에서 고졸자를 대상으로 사내 전문대학 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 합격해 2년간 전문교육을 받으며 한 단계 성장했다. 이후 관리직으로 승진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어릴 적부터 간직했던 ‘사업가’의 꿈을 향한 갈망은 점점 커져 갔다.

오래도록 빛나다, 구영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상위 관리직으로 승진하려면 4년제 대학 졸업이 필수였다. 업무 능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학력이라는 벽에 가로막히자 그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1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 1982년, ‘미광산업’을 창립했다. 직원 네 명과 함께 시작한 이 작은 회사는 이후 성장하며 ‘구영테크’로 거듭났으며 현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미국과 중국 법인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만학도, 인생 2막의 시작

창업 당시 40대였던 그는 대표로서 회사를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그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2006년, 50대의 나이에 계명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한 것이다.

“경영을 더 깊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의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 10시까지 는 야간 수업을 듣는 생활을 이어갔다. 일반 직장인도 퇴근 후 자기 계발이 쉽지 않은데, 그는 학부 2년, 대학원 3년을 매일 같이 일하고 공부하며 쉼 없이 달려갔다.

그는 동기들과 함께 밤새 과제를 하고, 매점에서 간식을 나눠 먹으며 대학 생활을 즐거운 추억으로 쌓아갔다. 졸업 후에도 동창들과의 우정을 이어가며, 교수님들과도 인연을 지속하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해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이어갔던 그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구영테크를 더욱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생하는 기업

이희화 동문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혼자가 아닌, 함께 잘 사는 것’을 경영 철학으로 삼았다. 그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모자애원 나자렛집’에 꾸준히 기부하며,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구지면 장학 재단에도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2025년 계명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계명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한 결과였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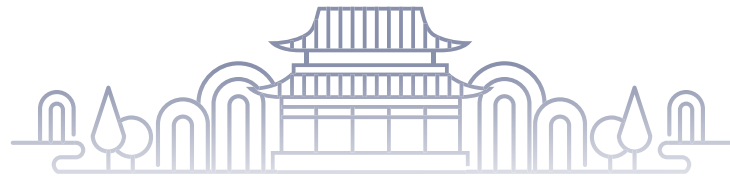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도, 그 이후의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에도 훌륭한 기업이 많으니,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희화 동문의 삶을 통해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더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그의 철학이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풍요로운 미래, 문화로 쌓아가다

최종수

(영어영문학과 80학번)



대학생이라면 한번쯤 접하게 되는 문화의 힘. 노전과 가학의 땅인 해외에서 음악과 예술을 하는 자신을 상상한 본 적이 있다. 트루디와 기술력의 상징이었던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는 기업 애플(Apple)에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할 기회를 가진다는 동경신 동문(기계자동차공학과 15학번)의 해외 취업 비결을 들어보았다.

경북의 문화예술을 부흥하는 데에 열정을 쏟는 이가 있다. 작가를 꿈꾸던 20대 청춘에서, 언론인의 길을 거쳐, 이제는 경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원장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80학번 최종수 동문. 그의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일대기가 아니라, 지역과 문화,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길은 현재 청년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80학번 최종수 동문은 대학 시절, 셰익스피어에 푹 빠져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지만, 졸업을 앞두고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기자의 길을 택했다.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면 언젠가는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언론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여러 번 낙방 끝에 1987년 안동 MBC 기자로 입사했다. 그 후 2022년 퇴직할 때까지 35년간 기자로서 언론인의 삶을 이어갔다.

기자 생활 내내 그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 '파사현정(破邪顯正)'¹⁾을 가슴에 새기며 올바른 사실을 전하러 노력했다. 2011년에는 지역 언론사들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아시아포럼21'을 창립하며, '균형발전과 소통'을 목표로 지역과 수도권, 세대 간, 계층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길을 열었다. 그 결과, '아시아포럼21'은 16년째 지속되며 지역 언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퇴직 후, 그는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원장으로서 도민들이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쌓은 현실적 감각과 균형 감각을 문화 정책에 접목하며, '모든 사람이 문화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1980년대 초반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던 일을 회상했다. 당시 캠퍼스에 탱크가 서 있었고 군인이 진입하기 직전까지 시위에 참여했던 기억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때의 경험은 그에게 '정의로운 역사'나 '숭고한 이념'보다는 다양한 인간에 대한 신뢰와 회의, 고민을 남겼다.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지만 영문학과에 진학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졸업할 때쯤, 그 선택이 필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외국인 교수들의 수준 높은 강의

를 받으며 큰 영향을 받았다. 그가 말하는 당시 교수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대학 시절 만난 아내(사학과 83학번)와의 인연을 가장 큰 행운으로 여긴다. 대학 시절, 그는 작가의 꿈을 좇았지만, 결국 글을 쓰는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는 "같이 언론사 시험공부를 하던 친구 중에는 삼성전자에 입사해 전무가 된 사람도 있었다"며, "사람마다 적성과 능력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선택했든 끝까지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북문화재단에서 그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젝트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문화 예술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는 '경북의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 예술 활동과 문화 산업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25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문화예술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창작 예술인과 문화 예술 단체에 체계적이고 실속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지역문화 예술 기반을 쌓는 일에 집중하며, 문화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종수 동문은 "우리 모두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평생 비전이라고 말했다.

계명대학교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출발점이자, 언제나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이다. 그는 '계명대학교는 내 꽃다운 청춘을 보내며 그 이후를 살아갈 자양분을 길러준 곳'이라며,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곳을 거닐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1) 사견(邪見)과 사도(邪道)를 깨고 정법(正法)을 드러내는 일

세계를 향하는 여정, 혁신의 정점에 달다.

유경진

(기계자동차공학과 15학번)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회 환경, 도전과 기회의 땅인 해외에서 유의미한 일을 하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트렌디한 기술력의 상징이자 많은 이들에게 선망받는 기업 '애플(Apple)'에서 글로벌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경진 동문(기계자동차공학과 15학번)의 해외 취업 비결을 들어보았다.

1.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15학번 유경진입니다. 2018년 8월부터 오번대학교 3+2 프로그램 학위제(이하 '3+2 학위제')를 통해 학·석사 통합 과정 및 박사 과정을 거친 후 현재 '애플'에서 배터리 품질 평가 엔지니어(Battery Qualification Engineer)로 근무하며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전 세계 글로벌 인재들이 꿈꾸는 기업 '애플'에 근무하시는 소감이 어떨까요?

애플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협업하며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애플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3. 배터리 품질 평가 엔지니어(Battery Qualification Engineer)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애플의 배터리 알고리즘 팀이 개발한 코드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제품이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성능과 안전성을 최종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배터리가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며, 제품 수명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배터리는 제품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과 높은 수준의 분석력이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4. 해외 취업을 꿈꾸게 된 계기와 준비 과정이 궁금해요.

오번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중 배터리의 충·방전 최적화 및 수명 예측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면서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커졌습니다. 또한, 지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졸업한 박사 중 일부가 이미 애플에 취업한 사례가 있어 저도 자연스럽게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게 되었죠. 만약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계명대학교의 국제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학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제 연구 및 프로젝트 경험, 네트워킹, 문제 해결 능력이 해외 취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영어는 학부생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꿈에 그리던
해외 취업을
현실로!



5. ‘3+2 학위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학년 때 처음 ‘3+2 학위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해외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이를 위해 계명대학교 ‘KELI 기숙사’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 실력을 키웠고요. 계명대학교의 ‘3+2 학위제’는 학업을 빠르게 이어갈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오번대학교에서는 연구 조교(GRA) 장학금이 제공되어 학비 부담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어요.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죠.

6.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만큼, 한국의 사회와는 다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적응하기 어려웠던 문화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나이, 직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업무나 미팅 때 간단한 질문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요. 월·금요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화·수·목요일은 출근하지만, 출근 시간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오래 남아 있는 것이 성실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며 워라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 유학 시절, 오번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한 공부는 무엇인가요?

오번대학교에서는 배터리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했어요. 연구실에서 배터리 성능 최적화, 충·방전 프로토콜 개발, 수명 예측 모델링 등의 연구를 진행하며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와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배터리 최적화 전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오번대학교가 위치한 미국 ‘오번(Auburn)’은 대학 중심의 작은 도시로, 치안이 좋고 여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연구에 깊게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또한, 미국의 대학교는 절대 평가제여서 학생들끼리 경쟁하기보다 함께 공부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8. 마지막으로, 계명대학교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국제 프로그램, 연구 프로젝트, 인턴십 등 다양한 활동이 미래를 완성하는 큰 자산이 됩니다. 특히 영어 공부는 미리 하는 것이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돼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학창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요.



유경진 선배가 추천하는
오번(Auburn)대학교 3+2 프로그램 학위제



내용	· 오번대학교에서 2년을 수학하여, 계명대학교 학사 학위와 오번대학교 석사 학위를 함께 취득 (1년 수학 시 계명대 학사 학위만 취득) · 방학 중 현대, 기아 등 협력사에서 인턴십
대상	기계자동차 전공 학부 3, 4학년
지원 자격	· 계명대학교에서 5학기 이상을 이수한 6, 7학기 재학생 [※] · 전 과목 평균평점 3.80 이상 · 아래 역학과목 모두 B+ 이상 : 정역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열역학 · AU에서 요구하는 아래 영어 성적을 취득하여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TOEFL 79(인터넷 시험), 212(신 컴퓨터 채점 방식) 이상 ② TOEIC 720 이상 및 Speaking, Writing 점수 소지자 (Speaking 및 Writing은 OPIc으로 대체가능) – 예시) TOEIC: 720, OPIc: IM 1, TOEIC Writing: Iv.4 또는 TOEIC: 720, TOEIC Speaking: Iv.5, OPIc Writing: NH 등 [※] : 미국 출국 전에 계명대학교 졸업을 위한 전공 및 교양필수 과목 반드시 수강 완료해야 함
선발 방법	학과 면접 후, 오번대학교에 지원서를 보내면 오번대학교 입학처에서 학생 선발
문의	기계공학과 학과사무실(053-580-5308)
졸업생 취업현황	만도(미국) 4명, 현대트랜시스(미국) 2명, LG에너지솔루션(미국) 1명, 한화 시마론(미국) 1명, SK on(미국) 1명, 박사과정 진학 2명 등

옴니보어, 세상을 폭넓게 탐구하다

‘옴니보어(omnivore)’는 원래 생물학에서 ‘잡식성 동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초식이나 육식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특성을 말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특정한 취향이나 관심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 주변에서 ‘옴니보어’ 같은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만학도(晩學徒)가 아닐까 싶다. 만학도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가 정한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다가, 이후 다시 공부를 시작한 학생을 의미한다. 이들은 기존에 사회생활을 했거나, 혹은 새로운 꿈을 위해 다시 학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대학이 20대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요즘 주변에서 80세의 대학 신입생 등 만학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만학도를 통해 들여다보는 ‘옴니보어’

만학도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한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지식을 접하며 스스로를 키워나간다는 점이다. 이들은 보통의 대학생들과 달리 사회 경험으로 인해 실천 경험을 갖춘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가지 학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공과 교양 및 기술을 연계하여 배우려는 경향이 강하다.

늦깎이 대학생 김계명(48) 씨는 개강하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전에는 강의실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동아리에서 20대 동기들과 콘텐츠를 기획하며 집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코딩을 배운다. “한 가지만 알아서는 더 큰 세상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는 자신의 배움이 ‘옴니보어(omnivore)’와 닮아있다고 말한다. 현시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학도의 존재가 대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만학도들의 등장은 대학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젊은 학생들은 보통 대학에서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학도들은 이미 사회생활을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은 만학도로부터 실무 지식과 관련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만학도들은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배우며 생각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만학도와 젊은 학생들이 서로 상생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세대 간의 교류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대학이라는 공간을 더욱 풍성한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만능 엔터테이너가 그 어느 때보다 추앙받는 요즘,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만학도들은 적극적으로 옴니보어를 실천하며, 본인의 가능성을 넓혀 가고 있다. 대학이 더 이상 ‘20대만의 공간’이 아닌 것처럼, 배움 또한 특정 연령층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결국, ‘옴니보어적 삶’이란 단순히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만학도들은 ‘옴니보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태도는 대학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계명대학교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지역민이 다양한 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계명시민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옴니보어를 실현하는 교육과 배움의 터, 계명시민교육원을 알아보자.

계명시민교육원

계명대학교,
지역민을 위한
교육에 앞장서다!



계명시민교육원은 계명대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직업 능력교육·인문 또는 시민참여 교육을 시행한다. 계명대학교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번 봄 학기에는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예술·건강·인문학·공예·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개의 강좌가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강좌를 수료하면 계명대학교 총장 및 계명시민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게 되며 문화유적 답사·사회교육 프로그램 우선 신청권·문화행사 초청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수강신청 방법

① 계명시민교육원 홈페이지
(<https://edulife.kmu.ac.kr>)

② 계명시민교육원 연락처
(053-620-2294, 2295)



대명캠퍼스(본원)

예술 아카데미	인문 아카데미
– 미술 – 댄스/음악 – 발레	– 자격증 – 취미·교양

성서캠퍼스(분원)

예술 아카데미	인문 아카데미
– 연필스케치 – 어반스케치 – 수채화	– 부동산 경·공매와 재개발·재건축 – 정리수납 전문가 2급 – 여행 기초 영어회화 등

※ 위 강좌는 학기별로 다를 수 있음



글로벌 디자이너로 거듭나기, 미술대학의 도전과 성과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이 또 한 번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각 학과의 학생들은 국내외 이름있는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현된 디자인 작품들은 새로운 시각과 감각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이 이뤄낸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그들이 만들어갈 더 큰 세상을 기대해본다.

① 패션마케팅학과: 이탈리아 밀라노 Fashion Graduate Italia 2024 참가 및 현지 현장학습 진행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10여 명의 학생이 2024년 10월 17일(목)부터 26일(토)까지 세계적인 패션 행사 'Fashion Graduate Italia 2024'에 초청받아 참석하고, 현장학습도 진행했다. 특히 양지윤, 전유나 학생이 직접 디자인한 옷을 출품해 무대에 오르는 성과를 이뤄냈다. 'Fashion Graduate Italia 2024'는 밀라노시와 이탈리아 패션학교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세계 각국의 패션 전공 우수 학생들이 참가해 저마다의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권위 있는 세계적인 행사에 계명대학교 학생들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초청받아 참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베네치아 아트 비엔날레 전시회 참관, Secoli 패션

학교 방문을 통해 의류 제작 교육 시스템 학습, 밀라노 현지 패션 시장조사와 기업 방문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이탈리아 밀라노 총영사관의 초청으로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글로벌 인재로 도약하기 위한 비즈니스, 외교, 문화활동도 체험했다.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는 글로벌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인 LINC 3.0을 통해 학생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풍성한 교육 체계를 통해 럭셔리 브랜드 PRADA의 시니어 매니저 윤희선 동문(2003년 졸업),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교수 박혜준 동문(2004년 졸업)·신운우 동문(2007년 졸업) 등 세계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배출해 내기도 했다.

시각디자인과
동아리
엑스포(EXPO)팀
WORK

TOGETHER
EFFECT

RunUp

Leaf Doc

GO STRAIGHT TO STORM A

TAMPING

How was your day?

hoomie

② 시각디자인과: 동아리 엑스포(EXPO)팀, 어도비 커뮤니티 Behance서 베스트 디자인 선정

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서 시작된 대학 연합 UX 디자인 동아리 '엑스포(EXPO)'가 세계적인 디자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비헨스(Behance)에서 메인과 UI 디자인 베스트 워크로 선정됐다. 비헨스는 어도비(Adobe)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특히, '엑스포'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UI 디자인과 컨퍼런스 포스터 및 패키지 디자인 작업으로 두 차례 베스트 워크에 선정되며 그 명성을 더했다.

동아리 '엑스포'는 2022년 계명대 시각디자인과에서 출범한 UX 디자인 스터디 그룹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부족한 UX 디자인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 계명대 학생 20명과 타 대학 학생 20명, 총 4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윤예원 학생은 "비헨스 베스트 워크 선정은 세계적인 디자인 에이전시도 이루기 어려운 성과"라며, "대구에서도 훌륭한 UX 디자이너가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해 자랑스럽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③ 산업디자인과: 김정은 학생의 ‘Hyper Modu:lar’, 제55회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대상 수상

“모듈형 컨테이너 하우스 개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과 교수님들의 조언 덕분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대상, 계명대 산업디자인과 김정은

대상 수상작
‘Hyper Modu:lar’



계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제55회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전람회’에서 대상을 비롯해 동상, 특선 등 총 10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심사위원단은 활용 가능성, 디자인, 아이디어, 제작 및 기술 수준 등을 평가해 최종 156점을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2024년 12월 12일(목) 오전 11시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3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김정은 학생(2025년 졸업)은 ‘Hyper Modu:lar’라는 작품으로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또한, 정서현·김정은 학생의 ‘들안예술마을: 공간 간의 연결’이 동상을수상하며,

대상과 동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주목받은 대상 수상작 ‘Hyper Modu:lar’는 이동식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 하우스를 유닛으로 설계해 바닥 레일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확립적 가치관을 탈피하고 사용자 니즈를 반영해 실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계명대 산업디자인과는 실무와 이론이 조화를 이룬 교육 과정을 통해 매년 ‘Red Dot Design Award’, ‘IF Concept Award’, ‘Spark Design Award’, ‘IDEA’ 등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며 글로벌 디자인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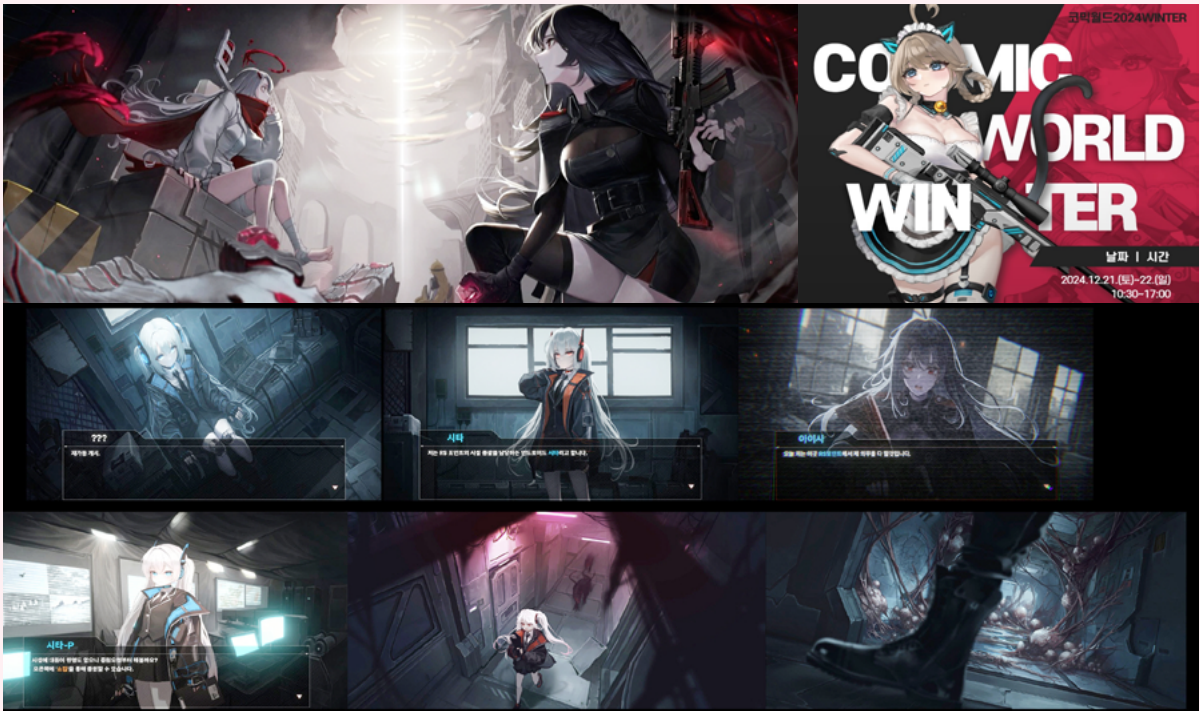
④ 영상애니메이션과: ‘OVER CLOUD’, 국내 대표 콘텐츠 박람회에서 창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다

계명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제작한 게임 ‘OVER CLOUD’가 국내 주요 콘텐츠 박람회 3곳에 참가함으로써 연이어 선정되었다. ‘OVER CLOUD’를 개발한 ‘프로젝트 미스트’ 팀은 영상애니메이션과 김진형, 김태운, 박민제, 이유빈, 채효민 학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공 수업에서 습득한 스토리텔링과 비주얼 아트 기술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게임 세계를 구현해 국내외적으로 학과의 경쟁력을 증명했다.

‘프로젝트 미스트’ 팀은 2024년 10월 ‘2024 대구콘텐츠페어’를 시작으로, 11월 ‘G-STAR 2024’(부산), 12월 ‘서울 코믹월드 2024 WINTER’(일산)까지 잇달아 참가했다. 이태희 지도교수는 “주요 박람회 선정과 참가는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경험이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K-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구콘텐츠페어	G-STAR	서울 코믹월드
(주)엑스코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대규모 콘텐츠 박람회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최하며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글로벌 게임 산업에서 주목받는 플랫폼	영상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창작자, 기업, 팬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





국제화 선도 대학, 그 이름에 걸맞게



낮선 땅에서의 배움이 설렘이 되기까지, 필요한 건 따뜻한 손길과 믿을 수 있는 동반자다.
전 세계에서 온 이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계명대학교는 차근차근 그러나 단단하게 국제화의 길을 걸어왔다.

계명대학교가 다시 한번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내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된 것이다.** 단순한 성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결과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그리고 세계와 연결되는 캠퍼스를 만들어온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이 인증제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함께 시행하는 제도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 항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유학생들의 언어능력부터 학업 이수율, 각종 지원 시스템까지 폭넓게 다룬다. 계명대학교는 이 모든 항목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며, 2018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자격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에 이름을 올리며 국제화 선도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전국 158개 대학이 이번 인증을 받았고, 그 중 '우수' 등급을 획득한 곳은 단 27개교뿐이다. 지방 사립대학 중에는 단 4곳만이 포함됐으며, 계명대학교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에는 70여 개국에서 온 3,36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 중 1,701명이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단지 학생 수가 많다는 점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눈에 띈다.

계명대학교는 해외 현지에 '계명코리아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언어권별 대학원생 근로 장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 유학생 지원 데스크'도 운영 중이다. 낮은 환경 속에서 유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 행정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생활 적응을 돕는 기획 프로그램, 학생 단체를 통한 문화 교류 활동 등도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다.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이런 활동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또한 계명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자치회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며, 매 학기 취업 캠프와 취업 기초교육 등 실질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명대학교의 국제화는 유학생 유치를 넘어서, 글로벌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넓은 시야를 키워나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명대학교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국제화 프로그램을 넓히고, 유학생 지원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세계 속 계명대학교의 이름을 더욱 확실히 새겨갈 것이다.





한국에서 펼치는 꿈의 계명, BUI QUOC LAP(부이 껍랍)

국제통상학과 19학번



낮선 나라에서 꿈을 이루는 일은 설렘과 도전이 공존한다.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유학생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계명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현재 지역 기업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한 유학생이다. 한국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취업까지 이어진 그의 여정,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부이 껍랍(BUI QUOC LAP)입니다.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19학번으로 입학해, 2024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경산 CGV에서 영업 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계명대학교에서 유학하게 된 계기와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에 대한 관심은 사춘 누나로 인해 시작됐어요. 누나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마침, 베트남에서도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유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흥미가 생겼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꼭 한국에서 공부하겠다고 결심했고, 유학생을 위한 어학당과 장학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계명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전공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무역업에 종사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국제통상학을 공부하고 싶었죠.

3. 유학 준비 과정과 한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 때 유학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 유학을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계명대학교 선배를 알게 되어서 입학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죠.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SNS와 영화를 활용했고, 한국에서는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베트남에서부터 맵게 먹는 연습도 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유학원 강의를 통해 기초를 다졌고, 한국 노래와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특히 가수 송민호의 힙합 음악을 좋아해서 제 한국 이름도 '최민호'라고 지었답니다. 한국에 온 후에는 계명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약 1년 반 동안 더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웠어요. 덕분에 지금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4. 취업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계명대학교 국제협력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취업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 도움을 받아 먼저 대구 세천산업단지의 한 기업에서 인턴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어요. 이후 CGV에 취업하게 되었죠. 지금은 사무보조 업무와 함께 미소지기(극장 고객 응대 직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요. 학교에서 취업 캠프와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실제 업무 적

응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매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목표와 유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국제통상학을 전공했지만 이외에 자동차공학을 복수전공했어요.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자동차 관련 분야를 더 깊이 배우고, 베트남과 한국 간 무역과 통상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힘을 얻었어요. 교수님들께 질문하면 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국제협력팀에서도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됐죠. 지금 유학 중인 학생들도 낮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주변에 도움을 줄 분들이 많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고, 모르는 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30th Anniversary

우리는 계명대학교를 비추는 ‘얼굴’,
홍보대사 ‘아리미 (ARIMI)’입니다.



대학을 알리는 사람들, 아리미!

아리미는 계명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들이다. 환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캠퍼스를 누비며,
학생과 학교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매 순간 계명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학교의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게 한다.
아리미, 그 존재만으로도 계명은 더욱 환하게 빛난다.



홍보대사, 그 이상의 아리미

1995년 출범한 계명대학교 홍보대사 ‘아리미’,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계명대학교는 1994년 ‘대전 엑스포 도우미’에서 힌트를 얻어 대학에도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크고 작은 준비 과정을 거쳐 1995년, 한강 이남 최초로 제1기 홍보대사 10명을 선발하고, ‘대학을 알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알림이’를 부르기 쉽게 ‘아리미’로 표기한 것이 그 시작이다.



각종 행사 의전 및 보조



캠퍼스 투어



메인 홈페이지, 책자, 각종 매체 홍보 모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아리미의 역할 및 활동

선발된 ‘아리미’는 애교심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학교 역사, 인성 교육을 위한 예절, 스피치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후 홍보대사의 자질을 갖추게 된 이후에야 진정한 ‘아리미’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리미’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장학금 외에도 각종 교육 할인 혜택, 프로그램 우선 선발, 졸업 시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받는다.

2025년, ‘아리미’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으로 8월에 첫 국외 봉사활동을 앞두고 있다. 무더운 여름, 캄보디아에서 아리미가 행할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큰 행복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

아리미의 혜택

현재까지 250여 명의 ‘아리미’가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홍보대사 경험을 토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인, 교수, 교사, 승무원, 사업가 등 본인의 능력을 뽐내며 졸업 후에도 ‘아리미’로서 계명대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1 아리미 장학금 지급
(학기당)

2 Compass K 점수 지급

3 교내 프로그램 우선 선발

4 IT 및 외국어 강좌 할인

5 국외 연수
(베트남, 태국, 홍콩 등)

6 동계 연수

7 CS 교육 기회 제공

8 스피치 교육

아리미, 그 이름으로 이어진 시간

푸른 유니폼을 입고 캠퍼스를 누비던 그 시절, 아리미였던 이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계명을 추억한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여전히 아리미를 기억하고, 같은 이름 아래 이어지는 이야기는 계속된다. 아리미 2인의 인터뷰를 통해 아리미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자.



홍진석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수 / 아리미 4기 / 토목공학과 92학번



서현균



아리미 동문회장 / 아리미 16기 / 사회체육학과 03학번

Q. 반갑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① **홍진석** :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공학과 92학번 홍진석입니다. 학부 졸업 이후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측량학) 석·박사 취득 후 2009년부터 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에서 측량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② **서현균** : 저는 계명대학교 사회체육학과 03학번이자 아리미 16기로 활동했던 서현균입니다. 현재는 울산의 한 제약회사에 다니며 행복한 가정을 이뤄 아들 둘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Q. ‘아리미’에 지원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홍진석** : 저희 때만 해도 아리미는 좀 생소했는데요. 우연히 선발 공고를 보게 되어 재미있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② **서현균** : 군대 제대 후, 복학하고 첫 동아리 모임에서 선배를 통해 아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쾌한 성격이었기에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받아서 아리미가 뭔지 잘 몰랐지만 지원했던 것 같아요.

Q. ‘아리미’로서 가져야 하는 사명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홍진석** :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명대를 대표해 활동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학교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늘 신중해야 하고, 그 경험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믿어요.

② **서현균** : 계명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그 마음가짐이 아리미로 활동하는 데에 적극성을 불어넣어 주죠.

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사회인이 되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아리미 16기_서현균

Q. ‘아리미’ 활동을 통해 얻은 점은 무엇인가요?

① **홍진석** :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지금 교직 생활 중에도 새 학기 첫 만남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또 행사 인원 배치이나 일정 조율 같은 실무 경험 이 쌓여서, 지금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② **서현균** : 저는 취업 준비할 때, 회사에서 승진 면접을 볼 때 항상 언급하는 저의 이력 중 하나가 바로 아리미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이력이기에 저에게 의미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사회인이 되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아리미’는 학교를 소개하며 계명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아리미 4기_홍진석

Q. ‘아리미’ 시절, 기억나는 추억이 있나요?

① **홍진석** : 학과 활동 외에도 아리미 동기, 선·후배들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의전 행사 후 뒤풀이, 경주 MT 같은 순간들이 특히 기억에 남고요.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갈 때면 선·후배들과 만나 옛 추억을 나누곤 해요.

② **서현균** : 입시설명회 때 고등학생들과 소통했던 시간들, 예쁜 캠퍼스를 거닐며 화보 촬영을 했던 시간 등 모든 순간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또 매년 아리미 졸업생, 교수님과 함께했던 ‘아리미의 밤’도 선명히 기억나네요.



아름다운 계명대학교를 알리는 온화한 사람 ‘아리미’

사소하지만 불편한 증상, 위식도역류질환

김유리 교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 위식도역류질환이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식도를 통해 음식물이 이동하고, 위로 이동하여 소화액과 함께 섞이면서 소화과정이 진행된다. 이때 식도의 가장 아랫부분은 하부식도괄약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 안에 가득 찬 음식과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하부식도괄약근이 약하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면서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를 위식도역류질환(GERD)이라고 부른다. 최근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비만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위식도역류질환 유병률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대표적인 증상

전형적으로는 흉부의 타는 듯한 작열감 또는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역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식 후 또는 누운 자세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물을 마시거나 제산제를 섭취할 경우 호전되는 경향이 있다. 그 외에도 만성 기침, 인후두 불편감, 그리고 어떤 경우는 흉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협심증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심장 검사 등을 먼저 시행한 후 이상이 없어 소

화기내과로 내원하는 환자들도 많이 볼 수 있다.

■ 위식도역류질환의 진단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사 없이 위식도역류질환을 진단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화성 궤양 및 위암의 유병률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 위내시경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경우 반드시 위내시경을 우선으로 시행하여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것은 아닌지를 먼저 감별한다. 내시경에서 위식도접합부의 미란 또는 궤양, 점막 손상 등이 관찰될 경우 위식도역류질환에 합당한 소견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내시경에서 정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위식도역류질환이 아니라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증상이 전형적일 경우에는 위식도역류질환으로 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약물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애매할 경우에는 24시간 식도산도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생활 습관 개선,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모두 병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위식도역류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우선 위식도역류질환의 경우 과식, 고지방 식이, 술, 담



나도 모르게 몸이 어둔하고 떨리며 느려지는, 파킨슨병

이준석 교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 파킨슨병이란?

파킨슨병은 중뇌 흑질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어 발생하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이 질환은 주로 파킨슨증이라 불리는 운동 증상을 유발하는데, 안정 시 손발 떨림, 근육 경직, 동작 완성, 그리고 균형 유지의 어려움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아직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러 환경적, 유전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파민 세포의 사멸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파킨슨병 유병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전체 환자 90% 이상에서 60세 전후의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간혹 50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도 발생한다.

■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만약 서서히 표정이 점차 줄어들고,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몸의 양쪽 균형이 깨지면서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한쪽에서 차이나가면서 느려지고 어둔하게 느껴지는 경우,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손, 발이 떨리는 경우 혹시 내가 파킨슨병이 아닐지를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파킨슨병은 일상적인 신체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는 운동 증상 외에도 자율신경계 이상(기립성 저혈압, 변비, 배뇨 이상, 성기능장

애, 땀 분비 이상 등), 수면 문제(렘수면행동장애, 과도한 주간 졸음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정서장애(우울증, 불안, 초조, 무관심 혹은 무감동 등), 인지기능 저하, 통증 및 피로와 같은 다양한 비운동증상이 함께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다.

■ 파킨슨병의 진단

앞서 언급된 운동 증상 및 비운동 증상이 일상에 불편을 줄 정도로 나타난다고 판단이 되면 파킨슨병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파킨슨병 임상 진단기준에 따르면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안정 시 떨림, 근육의 경직, 자세 불안정성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있어야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질환의 감별을 위한 뇌 MRI 및 도파민성 세포의 손상 여부를 알 수 있는 도파민 운반체 양전자 단층 촬영(PET) 검사들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 파킨슨병의 치료

파킨슨병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약물치료다.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은 도파민의 감소에 의해 나타나므로, 파킨슨병 약제는 주로 도파민 신경의 활성을 증가시

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레보도파제, 도파민효현제, 마오비억제제, 아만타딘 등이 있는데 이러한 파킨슨 약제들을 고려함에 있어 치료 전 병의 진행 상태에 맞춰 가장 적합한 약제를 개개인의 주증상에 따라 적절한 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약물치료와 더불어 운동치료도 중요하다.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 부족이 일어나기 쉽고, 운동 부족은 증상을 빠르게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은 필수다.



Spring + Summer
Apr. 2025

AROUND KMU

vol. 83



01

계명대, 2025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100%, 대학교육의 경쟁력 입증

계명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4,665명 모집에 4,665명이 등록하여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 이는 지속적인 성과로, 계명대학교는 대학 정보공시 기준 2020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도 100% 충원율을 기록한 바 있다. 지방 사립대학을 둘러싼 어려운 입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탄탄한 교육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전국에서 26,768명이 지원, 지방 사립대학 중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하며 경쟁률 6.53대 1을 나타냈다.

지난 2월 28일(금) 진행된 입학식에서 신일희 총장은 AI와 디지털 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 혁신 가속화를 선언했다. 신 총장은 “AI 기반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도하며, 학습자 중심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생 성공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1)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정 개발 2)기업과의 산학협력 확대 3)청결, 정직, 절약, 융합의 대학 문화 구현 등을 대학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학생 개개인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02

한문교육과, 2025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가 2025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전국 최다 합격자를 기록했다. 계명대학교는 전국 9개 한문교육과 중 1위를 차지하며, 국공립 8명과 사립 1명 등 총 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는 전국 국공립 한문과 선발 인원 44명 중 18%에 해당하는 높은 점유율이다.

1972년 12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는 현재까지 1,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한문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연간 모집인원이 15명에 불과한 이 학과는 최근 2년간 모집인원 대비 임용고시 합격률이 63.3%에 달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24년에는 서울 3명, 경기도 3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이제혁(27, 경기도 합격) 졸업생은 “학·석사 연계 과정 덕분에 깊이 있는 학문적 배경으로 체계적인 임용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학과 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 그리고 집중적인 학습 환경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는 문학, 역사, 철학 등 한자 문화권의 전통문화를 깊이 탐구하는 동시에, 현대 교육 환경에 적합한 한문 교육 방법론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가 지속적인 임용시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03

계명대, 산불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 나서

울릉,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계명대학교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임시 대피소 청소와 세탁 지원을 시작으로 긴급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하고, 피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대입 전형 컨설팅, 학생자치기구의 성금 모금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계명대학교는 지난 4월 5일(금)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이동 빨래방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계명대학교 학생 봉사단과 지역 새마을부녀회가 참여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 청소와 세탁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미안마 출신 유학생 2명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 미안마도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생들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섰다. 사단법인 ‘계명1%사랑나누기’를 통해 긴급구호 성금 3,000만 원이



피해 지역에 전달됐다. 이 단체는 교직원 봉금 1%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이번에도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아울러, 계명대학교는 긴급 복구 봉사단을 피해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며, 학생자치기구 차원에서의 성금 모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04

계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9년 연속 우수(최고 등급) 대학 선정



계명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차 평가에서 9년 연속(대학일자리센터 6년 포함) 우수(최고 등급) 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기존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개편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와 고용센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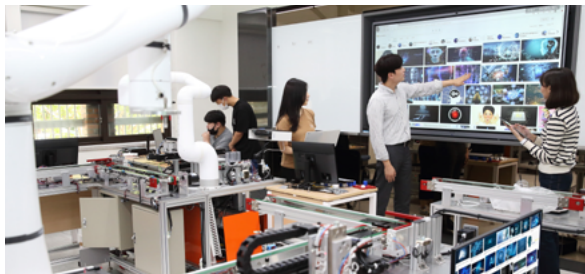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 대학일자리센터 시범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대구 지역 거점 센터로서 다양한 유관 기관, 기업체,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1)진로·취업 상담 고도화 2)기업체 및 졸업 동문 현직자 중심 멘토링 3)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4)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 연계 취업 박람회 5)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전국 8개 대학 시범 운영) 등 실질적인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24년에 시범 운영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서도 최고 등급인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다. 이성용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계명대학교는 지난 9년간 진로·취업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과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데 앞장서왔다”며, “앞으로도 대구 지역 취업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05

2025학년도 신입생 전원에 AI 플랫폼 제공...미래 교육 혁신 선도



계명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을 추진한다. 신입생 4,700명에게 AI플랫폼 ‘ChatGPT Team Plan’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한 특강, 실습, 교과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AI 기술을 학습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학의 혁신 차원에서 신입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고자 계획되었다. 신입생들은 먼저 전공필수 교과목인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수강을 통해 AI의 기초에 대해서 학습한 후, OpenAI에서 제공하는 ‘ChatGPT Team Plan’을 이용해 텍스트 해석, 문서 요약, 데이터 분석, 코딩 등을 실습하게 된다.

계명대학교는 앞으로도 최신 교육 기술을 적극 도입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신일희 총장은 “대학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 활동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소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6

계명대 -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의 국제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명대학교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이 3월 5일(수) 오전 11시 30분 계명대학교 행서관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고등교육 국

제화 정책 개선,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국립국제교육원 한상신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화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계명대학교와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국제 교육 교류 기관이다. 1962년 3월 1일에 설립됐으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GKS 장학사업),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외국어 공교육 지원 등 다양한 국제 교육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국제 협력을 통해 한국의 교육 국제화 위상을 높이고 있다.

07

계명대 테스터즈 팀, 2024 WE-Meet 프로젝트 교육부장관상 수상



계명대학교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테스터즈(Team Testers) 팀이 1월 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WE-Meet 프로젝트 시상식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WE-Meet 프로젝트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일환으

로, 학생들이 기업과 협력해 지역 및 산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첨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테스터즈 팀(김홍명, 서호은, 김재현, 권지수)은 게임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VR/AR 기반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엔터테인먼트 기술개발에 특화된 기업인 ㈜겔릭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며, 창의적 콘텐츠 제작과 문제 해결 역량을 선보였다. 특히 실무와 교육의 연계를 통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실감미디어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어학당, 1,500여 명 유학생 맞이하며 2025학년도 개강식 열어



계명대학교 한국어학당이 3월 20일(목) 오전 11시 노천강당에서 2025학년도 한국어 정규과정 입학식 및 개강식을 열고 31개국 출신 1,500여 명의 유학생을 맞이했다. 대구·경북 지역 최대 유학생 보유 대학인 계명대는 이번 개강식을 통해 국제화 선도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다졌다.

현재 계명대학교에는 총 3,5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중 한국어 연수생 1,500여 명을 제외한 학부, 대학원, 교환학생 등은 약 2,000명에 달한다. 또한, 계명대학교는 201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증을 꾸준히 유지했다. 특히 2025년에는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

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확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편, 계명대학교는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타지키스탄 4개국에 세종학당과 계명코리아센터를 운영해 한국어 보급 확대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 행사와 현지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계명대학교는 해외 현지 센터의 운영 국가를 추가로 확대하며 글로벌 캠퍼스로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계명대 홍성훈 교수 연구팀, 해양공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

계명대학교 로봇공학과 홍성훈 교수 연구팀이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AIS 데이터 기반 원격 상황인식 방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해양 공학(Ocean Engineering)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Q1급(Imfact Factor Top 3) 국제 저명 학술지 Applied Ocean Research에 게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데이터를 이용한 연안 선박의 원격 상황인식을 위한 항해 패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다. 상황인식 기술은 이동체가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며,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자율주행(또는 자율운항)의 핵

심 기술이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과 유인·무인 선박이 복잡한 연안 해역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VTS(해상교통관제) 센터에서 장기간 수집된 대용량 AIS 데이터를 활용했다.

홍성훈 교수는 "장기간 수집된 AIS 빅데이터 분석을 자율운항선박의 원격 상황인식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은 국내외에서 거의 시도된 바가 없으며,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석사과정에 진학해 제1저자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계명대 텍스타일디자인과, 'PID 2025'서 창의적 디자인·산업 협력 성과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텍스타일디자인과가 3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국제섬유박람회 '프리뷰 인 대구 2025(PID 2025)'에 참가해 홈 인테리어와 어패럴을 위한 창의적인 텍스타일 디자인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Pivot'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에 즉각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체계적인 트렌드 분석을 바

탕으로 니트와 우븐 소재를 활용한 홈 인테리어 및 어패럴용 텍스타일 디자인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현대 디자인의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텍스타일디자인과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산업체와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며,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2025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패션쇼에서는 로지마레(Rosy Mare)와 마리엔느(Marienne) 등은 산학협력으로 개발된 신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었다. 또한 학과 졸업생이 창업한 텍스타일 전문 브랜드 '포움(POUM)'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올해 23회를 맞이한 대구국제섬유박람회 'PID 2025'는 섬유와 미래 가치를 강조하며, 원사, 직물, 기능성 및 친환경 소재, 디지털 섬유 인쇄, 부자재, 침장, 패션 의류 등 최신 아이템을 소개했다. 또한, 신소재 및 내구성 특별관, 온라인 화상 상담회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섬유문화 콘텐츠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계명대 체육대학 겹경사… 육상 금2·은1, 태권도 국가대표도 배출



계명대학교 체육대학이 4월 전국 규모의 주요 체육대회에서 육상과 태권도 종목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겹경사를 맞았다. 육상부는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고, 태권도부에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가 배출되며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

육상부는 4월 1일(화)부터 3일(목)까지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0회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2, 은1의 성과를 기록했다.

윤지수 선수는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10분 36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같은 종목에 출전한 임준영 선수는 10분 50초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진 4×1500m(총 6000m 계주) 경기에서도 임준영, 김시온, 강지훈, 윤지수 선수가 팀을 이뤄 17분 36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해 금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계명대학교 체육대학은 최근 2025년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에도 4명이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양궁부에서는 김기범(체육학과 1학년)과 장준하(체육학과 2학년) 선수가 남자 리커브 부문에, 육상부 중장거리(5000m, 10000m, 하프마라톤) 부문에는 김동환(체육학과 4학년) 선수가, 검도에서는 이준혁(사회체육학과 4학년) 선수가 상비군으로 최종 선발됐다.

Spring + Summer
Apr. 2025

AROUND DONGSAN

vol. 83

01

동산병원, 1기 ‘연구 중심병원’ 인증 획득



계명대 동산병원이 3월 26일 보건복지부 ‘연구 중심병원’ 인증을 획득했다. 기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개편된 이후 첫 인증으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지역 사립대학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다. 이로써 동산병원은 환자경험평가 전국 1위, 각종 진료 적정성 평가 1등급 등 진료·서비스에 이어, 연구 분야까지 최고 수준의 상급종합병원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02

동산의료원,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추진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최첨단 암 치료 기술인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본격화하며 지난달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양성자 치료기 도입의 필요성과 과정, 향후 계획 등이 공유되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5월 중으로 양성자 치료기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5월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03

동산의료원, 의료 AI 도입으로 디지털 선도 스마트 병원 도약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엘스비어의 선도 의료 AI 플랫폼인 Clinical Key AI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동산의료원은 이번 도입을 통해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의학 연구 및 진료를 선도하는 디지털 선도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04

동산병원, 카카오톡 ‘케어챗’ 오픈

계명대 동산병원이 3월 4일 카카오톡 기반의 AI 챗봇 서비스 ‘케어챗’을 공식 오픈했다. 기존 타 대학병원에서는 진료 예약에 한정된 케어챗을 도입한 데 반해, 계명대 동산병원은 국내 최초로 입원 수속부터 퇴원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입원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외래부터 입·퇴원 영역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를 동시에 오픈하며 의료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05

동산의료원, ‘환자 투약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한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스마트병원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 투약 안전관리 솔루션(이하 CLMA: Closed Loop Medication Administration)’ 구축에 들어간다. CLMA 솔루션은 4월 중 테스트를 거쳐, 5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 13일 행소대 강당에서 환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CLMA 구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환자 안전 체계 구축과 의료진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목표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했다.

07

동산병원, 암 적정성 평가 3개 부문 및 각종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계명대 동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폐암’, ‘대장암’,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관상동맥우회술,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울증외래, 수혈,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하는 등 계명대 동산병원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입증했다.

08

동산병원 정은영 교수팀, 세계 최초 소아 단일공 로봇수술로 담관낭종 절제 성공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외과 정은영 교수 연구팀이 소아 환자에서 단일공 로봇수술(Da Vinci SP)을 이용한 담관낭종 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이를 SCI 학술지(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Robotics Computer Assisted Surgery, Wiley IF=2.5)에 게재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소아 단일공 로봇수술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사례로, 향후 소아외과에서 로봇수술이 더욱 활성화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06

동산병원, ‘방사선 제로’ 펄스장 절제술 국내 두 번째 성공

계명대 동산병원이 최근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3차원 지도와 장비와 심장 내 초음파를 사용하여 방사선 노출 없이 심방세동에 대한 펄스장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방사선 노출 없이 펄스장 절제술이 이뤄진 것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펄스장 절제술(PFA)은 전기장을 이용해 심장 비정상 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첨단 기술로, 기존 고주파 절제술이나 냉각 절제술에 비해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높은 정밀도와 안정성으로 환자에게 더욱 안전한 차세대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음악, 교육, 나눔으로 전하는 사랑 하석배 (음악예술공연대학 학장)

천상의 목소리로 세계 무대를 누비던 성악가는 이제 교육자로서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인 하석배 교수는 오랜 시간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다. 음악과 교육, 그리고 따뜻한 나눔을 향한 그의 깊은 애정을 담아, 하석배 교수와의 특별한 인터뷰를 시작한다.



Q.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성악가이자 현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인 하석배입니다.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음악대학의 행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계명아트센터 관장으로서 공연 운영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Q. 계명대학교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해외에서 테너로 활동하던 중, 국립 오페라단 공연을 위해 서울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시기에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창설되었고, 대구에서 공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계명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계명대학교에서 테너 교수직을 채용 중이었고, 2005년 교수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학교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계명 더하기 장학금'을 기부하셨는데,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1995년, 저는 성악 공부를 위해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이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국가나 학교의 지원을 받아 학업에 전념하는 선진국 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다양한 교육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저 역시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Q. '나눔'에 대한 학장님의 견해가 있다면요?

많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고, 만족하기가 어려운 법이죠. 하지만 나눌수록 오히려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덜 쓰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맛있는 것처럼, '나눔'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Q. 음악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같은 길을 꿈꾸고 계신다니 반갑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악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제 노래를 듣고 희망을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음악과 예술의 길을 걷는 후배들도 직업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찾기 바랍니다.

Q. 학장님께 계명대학교란 어떤 존재인가요?

저에게 계명대학교는 단순한 직장이나 '자존심'입니다. 제가 쌓아온 지식과 삶의 지혜가 만나 '지성'이 되어 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후배들에게도 빛을 전할 수 있죠. 계명대학교는 저의 모든 자존심이 걸려 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지역과 함께 걸어온 길, 계명대학교는 그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배워왔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다시 지역과 미래세대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학생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기부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듯, 우리의 작은 마음을 모아 큰 나눔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내일을 밝힙니다.



기부자의 뜻에 배를 더하다

계명더하기 장학기금 모금

2021년 8월 계명대학교는 기부금액에 매칭장학금 100%를 더해 기부자 명의의 장학기금으로 운용되는 '계명더하기 장학기금'을 신설하여, 기부자의 뜻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 1. 최소 장학기금 기부액 : 5천만 원 이상
- 2. 학교 장학기금 매칭 시기
 - 일시납부 : 기부금 입금 후 1개월 이내
 - 분할납부 : 회차별 분할 납부금액 1천만 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 회차별 입금 후 1개월 이내
 - 장기(1년 이상) 분할납부 등 : 기부 약정금액 완납 시점 기준 1개월 이내
- 3. 장학기금 용도 :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 4. 장학기금 운용 : 장학기금 완납 후 이자수익금으로 장학금 지급

계명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2021년도 개정 예우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예우내용		구분	1백만 원 이상	사랑	정의	진리		계명비사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총장명의 감사패 또는 기부증서			●	●	●	●	●	●	●	●
학교달력 발송			●	●	●	●	●	●	●	●
학교소식지 발송			●	●	●	●	●	●	●	●
기념품 증정(기부 약정시)				●	●	●	●	●	●	●
도서관 이용 혜택 (도서열람 및 대출)				●	●	●	●	●	●	●
교육비 감면	계명시민교육원 (비학위과정)			50%	50%	50%	50%	100% (무료)	100% (무료)	100% (무료)
	특수대학원			30%	30%	30%	30%	100% (무료)	100% (무료)	100% (무료)
	외국어학당 수강료			10%	30%	30%	30%	100% (무료)	100% (무료)	100% (무료)
학교시설 이용 시 감면					●	●	●	●	●	●
명절선물(설 추석)				●	●	●	●	●	●	●
동산의료원 이용 혜택 (본인, 배우자)	종합건강검진 (일반)			50% 할인	1회	1회	2회	3회	5회	연1회 (평생)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30%할인			100%할인 (무료)		
무료주차등록					●	●	●	●	●	●
장학기금 명칭 부여					●	●	●	●	●	●
강의실 명명								●	●	●
강당 및 홀 명명									●	●
건물 명명										●

※ 상기 예우기준은 기부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전 · 현직 교직원 기부자의 동산의료원, 학교 교육비 및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예우는 교직원 감면을 우선 적용

문의 : 대외홍보팀(053-580-6323)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발전기금을 기부(약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뜻을 존중하여 대학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납부기간 : 2024. 9. 1. ~ 2025. 2. 28.

재직 교직원	정하정 조도희	사공창호 서영희	최원석 최유담	박찬호 박창모	최은정 최인선	손우영 손태관
천만 원 이상 오천만 원 미만	조범래 조창모	서재훈 석재혁	최을한 최이규	박충순 박해남	최종호 하지원	신상수 신재영
	추동혁 허선호	신동민 신동익	최인섭 최정화	박형진 박출일	한경임 허경미	신형준 신효정
김종철 이병찬	황인덕	신상현 신지숙	최정화 최하늘	변재웅 서미정	허정윤 황은령	신희원 심동우
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미만	오십만 원 이상 백만 원 미만	안성진	최형석 하석배	서봉호 송근유	삼십만 원 미만	안재범
신진교 이병로	Cruz, Angolita Bautista Lach, Roman Wolfgang	양봉석 양선아	하정철 한만배	송형식 신민혜		Zatdinov, Rushan 권의섭
이필한	Synn, Chaeki Freya	양지웅	한여동	신유준 신호철	김동휘 김명남	이태영 어수정
백만 원 이상 오백만 원 미만	Synn, Jienki	엄홍준	황지희	안용호 엄우용	김문영 일반대학원 행정팀 김문영 패션마케팅학과	오복시내 오세욱
	Lee, Janet Yoon-Sun	곽은성	오세연	오지훈	김민식	오우성
MacLean, Stanley Stephen	구보순	윤태숙	Hahn, Charles Changho	유영욱	김상우	유민식
강문식	권상우	이규석	Hong, Victor Sukbong	유문기	김성연	윤준용
고은경	김경미	이기동	강명화	유병환	김세원	이가경
김관구	김경호	이동석	고성철	유승열	김세진	이동활
김범준	김기석	이성우	구술아	유정원	김억윤	이민기
김봉수	김기엽	이수연	권순철	윤재우	김영찬	이상진
김서준	김도형	이수원	김경희	윤호경	김운성	이상혁
김선정	김명수	이수진	김규태	이대호	김원성	이소정
김성중	김배환	이승욱	김동범	이상철	김원진	이윤아
김영화	김백철	이영숙 약학과	김동욱	이선장	김인갑	이인섭
김점웅	김성안	이인경	김무중	이선희	김지영 전산운영팀	이재룡
김정진	김승원	이민경	김민수	이성욱	김진철	이준혁
김종수	김영석	이정일	김보라	이신우	김진현	이중희
김창완	김영철	이종하	김상희	이영숙 학술정보지원팀	김표성	이현경
김한수	김완호	이종협	김선이	이윤석	김현성	이현미
도달현	김윤희	이진호	김성현	이은영	김현정	이현상
박상범	김인순	이태관	김성환	이재구	김희란	이화영
박천만	김재현	이형택	김숙찬	이지우	김희연	임기상
박희준	김정규	이호택	김순자	이진영	김희일	임인섭
배재영	김정길	이호형	김신혜	이태희 영상애니메이션과	남화은	장기선
배재훈	김춘이	정요한	김영희	이태희 국제통상학과	노상훈	장영철
배현균	김학윤	김인규	김민수	이혜정	도영철	장요선
백수현	김희석	김주욱	김준호	임은택	류수정	장현소
손혁	김유석	장준호	김준호	임창민	문성화	정상교
안숙영	박민수	전병오	김지영 학술정보지원팀	장경희	민승기	정수태
양근우	박선우	전한솔	김지현	장태묵	박경욱	정중호
윤광열	박성준	정경훈	김진명	정연호	박경희	정철우
이광구	박소영	정만주	김진찬	정영석	박기준	정태우
이삼빈	박윤주	정병선	김창섭	정지웅	박병훈	정호기
이성용	박정근	정상희	김호	정철중	박정훈	정훈
이영호	박성준	정윤정	나유리	정치훈	박종섭	조미경
이종원	박소영	정찬복	남궁현	정현희	박지범	조용수
이종한	박소영	정찬호	남대협	조수현	박진현	조현욱
이지민	박윤주	정철호	노백호	주성현	박홍의	차영근
이준호	박정근	조석현	박성호	천우광	배대일	차지민
이종권	박진욱 공중보건학과	조영식	박소연	천창익	서미숙	최경훈
임경수	박혜선	조효은	박애자	최보라	서영준	최삼근
정대원	배정우	천경수	박영호	최선경	서영호	최순석
정용진	배창범	천호재	박장춘	최성근	서창범	최재원
정인철	백가범	최명숙	박종명	최상희	سنجو형	추윤호
정점웅	변명환	최미경	박진석	최영찬	손나경	하지수
	변성준	최봉도	박진욱 생태조경학과	최은영	손대호	허남우

허필식	김동진	박미혜
홍보윤	반사(반SA)	박상형
홍수비	배형준	박세솜
황대관	백두현	박속진
황일향	위드미	박신우
황효순	윤은숙	박연주
퇴직	윤진식	박은아
교직원	의양회	박재우
백만 원 이상	이주화	박창규
오백만 원 미만	전현욱	배성아
박준태	정의석	배소식
오십만 원 이상	주식회사 로인즈	배현주
백만 원 미만	주식회사	백경우
김남식	마인드브릿지케어	서수미
삼십만 원 이상	주식회사 이도산업	서수진
오십만 원 미만	주식회사	서창규
강동우	한스와비이어	성지혜
삼십만 원 미만	오십만 원 이상	센스튜디오
강숙성	백만 원 미만	손동주
구선희	권정훈	손선희
김덕영	노태진	신기동
김영배	조운영, 이은미, 남경진	신종대
김일조	삼십만 원 이상	신주연
김정현	오십만 원 미만	신철수
박미경	곽범덕	안의숙
박수호	김종현	양숙희
성이환	솔프(SOMP)	여원구
손인호	이상훈	오경숙
양재희	삼십만원 미만	윤수용
윤요은	강미숙	윤정민
이석순	강혜림	이광희
이성아	공영미	이기창
이은희	곽선희	이명순
전상영	권혁재	이민영
정숙정	김동현	이상걸
정혜숙	김성근	이선영
조상국	김성호	이숙희
한진협	김세련	이은실
홍숙	김영은	이은영
홍희숙	김용문	이정찬
등문	김원일	이태분
재학생	김윤정	이형균
천만 원 이상	김은일	이혜란
오천만 원 미만	김은희	장봉학
계명대 총동창회	김익기	장상언
자연마을(장원유통)	김정애	장성용
오백만 원 이상	김정이	장은정
천만 원 미만	김정희	전경옥
황철모	김종하	정광일
백만 원 이상	김창우	정은자
오백만 원 미만	김태혁	정인자
(주)어나더브레인	김현주	정한성
(주)첫눈	김혜련	조아자
(주)텀즈원	나명숙	조은서
(주)플로우	남병헌	조현길
간호대학 동창회	남홍식	조화숙
강명수	노현희	지차남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동문회	류태호	최명희
계명대학교	류필환	최상언
태권도학회	문은희	최선정
계명대학교	문정남	최연숙
태권도학과 학생회	박경연	최영희 간호학과(원)
권정웅	박만웅	최영희 사회학과(원)
	박미경	최윤지
	박미란	최정희
		표용수
		현혜정

홍성근	전만 원 이상	김신우	이세영
홍진현	오천만 원 미만	김연옥	이소자
황순희	(주)에스알	김영란	이영수
유관기관	(주)이디앤씨	김옥희	이영주
일억 원 이상	XUE YIFAN	김원웅	이에림
iM뱅크(대구은행)	이석형	김유미	이은령
오천만 원 이상	오백만 원 이상	김민준	이은방
일억 원 미만	천만 원 미만	김정자	이은정
(재)한국장학재단	(재)송곡문화장학재단	김정화 대구 달성군 다서읍	이은주
(주)케이엠에프	(주)에온스가구	김정화 대구 중구 남산동	이은진
천만 원 이상	진국록	김정희 대구 북구 학성동	이인하
오천만 원 미만	백만 원 이상	김정희 대구 북구 동촌동	이재유
(재)동일문화장학재단	오백만 원 미만	김중순	이정희
(재)유한재단	(재)우석문화재단	김진선	이준영
(재)화성장학문화재단	(재)충강문화장학재단	김진호	이지선
오백만 원 이상	(주)우시산	김진태	이현숙
천만 원 미만	(주)이튜	김찬숙	이현식
(재)삼성복지재단	K.S.P.C.I	김효경	이효신
(재)정수장학회	국피를 인터넷서널	남숙경	임수빈
계명1%사랑나누기 운동본부	대구경북지부	대구역여성노동자회	임운탁
농협은행(주)	김게성	두정숙	임채호
내당동지점	송강미술관	라철웅	장건우
백만 원 이상	이영헌	류부영	장임식
오백만 원 미만	내당동지점	문복선	장주이
(재)두산연강재단	아침원	문예은	정연희
(재)서도창학재단	임순정	민승경	정은연
(재)유남장학회	재난법인 선현	민은정	정은희
(재)케이티그림 희망나눔재단	주식회사	박갑순	정현숙
(재)한국섬유산업 연합회 장학재단	에스엔터테인먼트	박경옥	제갈민음
(재)한국지도자 육성장학재단	오십만 원 이상	박기령	조명숙
(주)KT&G 대구본부	백만 원 미만	박미선	조수현
(주)풍진	(주)연수	박선매	조현영
오십만 원 이상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	박신평	조형래
백만 원 미만	연구원 일동	박수희	조흥래
(재)죽산장학재단	민자	박순례	주식회사 지구마을 농업회사법인
계명후원의집	박재한	박예진	주윤정
오십만 원 이상	윤상애	박인덕	주향기
백만 원 미만	이브센스	박인옥	최석경
(재)죽산장학재단	주식회사 안다르	박정선	최인태
삼십만 원 이상	편영식	박해선	최양하
오십만 원 미만	삼십만 원 이상	배소현	한창수
(주)에이더블유포텔	오십만 원 미만	배정희	허경진
뉴부산식당	(주)마이하우스	서상진	허기쁨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김현미	서지향	허미진
주식회사 슬기로운마트생활	사단법인 울산여성의전화	서초현	홍인수
삼십만 원 이상	의성세일교회	석혜진	홍호경
오십만 원 미만	장영희	송동현	황해진
(주)에이더블유포텔	최수만	송영욱	
뉴부산식당	삼십만 원 미만	송진수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강가연	안경순	
주식회사 슬기로운마트생활	강성우	안연진	
삼십만 원 이상	강정림	양예린	
오십만 원 미만	고현자	양준혜	
(주)에이더블유포텔	권순남	여성택	
뉴부산식당	권영미	여성택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김경희	여금봉	
삼십만 원 이상	김경희	염기은	
오십만 원 미만	김만덕	오미경	
(주)에이더블유포텔	김미자	오현석	
뉴부산식당	김반심	이경숙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김수현	이귀혁	
삼십만 원 이상	김숙희	이규봉	
오십만 원 미만	김시연	이금로	
(주)에이더블유포텔		이동복	
뉴부산식당		이미향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이민주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주)에이더블유포텔			
뉴부산식당			
대구경북야동농협 이바람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후원은 세계를 향해 빛을 열어가는 계명대학교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 기금조성 동문, 기업, 기관, 교내구성원 등 * 기금운용 장학금, 학과발전기금으로 활용

후학사랑 기금 조성

선각자들의 헌신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금의 계명대학교를 일구었습니다. 후학사랑 기금 조성으로 후학들과 학교, 학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키우고 사람을 가르치는 따뜻한 마음을 후학사랑 기금으로 일구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장학금, 학과발전기금

6·25 참전국 출신 학생 교육지원기금 조성

6·25 전쟁 발발 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계 63개국에서 병력과 의료, 물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발전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지원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계명대학교를 찾는 6·25 참전국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6.25 참전국 출신 외국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원

계명더하기 장학기금 조성

5,000만 원 이상 장학금을 기부한 기부자의 뜻을 높여 기부금액에 100% 매칭자금을 더해 기부자 명의의 '계명더하기'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 기금 목적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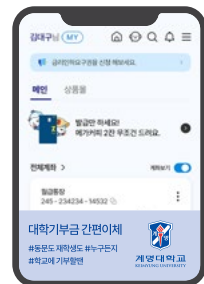
고려인 출신 학생 교육지원기금 조성

연해주에 터전을 잡았던 약 17만 5,000여 명의 고려인들은 1937년 옛 소련의 가혹한 분리·차별 정책으로 정착지에서 쫓겨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인 강제이주를 상기하면서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려인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을 통해 고국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고려인 출신 외국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원

발전기금 납부방법

• 모바일 간편이체



iM뱅크 어플 다운로드 및 로그인

전체메뉴 > 이체 > 보내기 > 대학기부금이체 선택

간단 정보 및 기부금액 입력

기부금 이체 완료

- 직접 납부 대외홍보팀으로 현금 직접 납부 또는 지정된 계좌로 송금 (iM뱅크 086-04-000434-7) (우리은행 1006-601-275545)
- CMS 이체 기부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지정된 날짜(15일 또는 30일)에 자동인출
- 유산기부신탁 계명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문 신탁증권사를 통한 기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220호 대외홍보팀

TEL 053-580-6323 FAX 053-715-2014 E-mail hongbo@kmu.ac.kr Homepage http://funds.kmu.ac.kr/funds/index.do

#계명을 팔로우하다

계명대학교의 다양한 공식 SNS 채널에서 생생한 캠퍼스 소식을 만나보세요!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학교 행사, 학사 일정, 동아리 활동, 장학금 정보까지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활기찬 일상과 캠퍼스 라이프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하고 계명의 다양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하고,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해주세요!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계명SNS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blog

장학금

캠퍼스 라이프

#계명대학교

동아리활동

계명브릿지

대외활동



